



# 불교대학을 찾아서

## 13 강원불교대학

1994년 호반의 도시 춘천에 강원불교대학이 개교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배움에 목말랐던 사람들 모두 강원불교대로 모여들었던 것이다. 불교학·사회복지·일반교양강좌·불교의식 등 4강좌에 주간, 야간, 통신반 등을 함께 개교 첫 해에만 360여명의 학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러 왔다.

이처럼 춘천에 불교 교육 바람이 인 것에는 뛰어난 강사진과 아낌없는 투자도 한 몫을 했다. 강원불교대학이 태고종 소속 석왕사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불법 전파에는 종단 구분이나 승속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과, 교육에서 나온 이익금은 교육으로 전액 재투자해야 한다는 학장 백은 스님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성타 스님(불국사 회주,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박은곡 스님(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심만춘 스님(태고종립대학 동양불교대 부학장) 정병조·권기중 동국대 교수 등이 대학에서 강의했다.

1기부터 5기까지 강원불교대학에서 배움을 받았던 사람으로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50여명, 강원대·한림대 등 대학교 수 7명, 시장·군수 3명 등. 나름대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체면 따위는 벗어던지고 강원불교대로 찾아들었다. 지금까지 배출한 졸업생만 해도 3200여명. 특히 춘천시에 사는 불자들은 대부분 강

원불교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원불교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재직 사무원이나 직장으로 들어가 각 단체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배움의 희망은 원래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해야 포교 활동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배움의 뿌리를 잊지는 않는다. 졸업생들은 총동창회를 만들어 1년에 한번씩 정기 법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동문들의 우의도 다지고 강원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계획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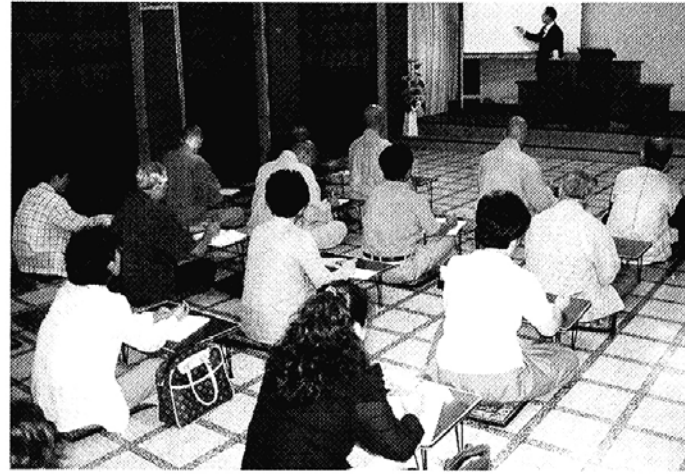
## 94년 첫해 360명 수강...강원도 불교바람

## 교훈 信·解·行·證-월1회 實修 배움 체화

## 내년 대학원·홈페이지 개설 제2도약 계획

또한 총동창회를 흥천·원주·강릉 등 해 동으로 지역을 구분, 분기별로 사찰순례를 하며 신심을 다진다.

현재 강원불교대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7시에 강의를 연다. 신·해·행·증(信·解·行·證) 즉 올바른 믿음(信)으로 올바르게 이해(解)하고, 믿고 이해한 것을 바르게 실천(行)한 다음, 이해와 실천의



동국대 불교학과 조영길 교수(도서관장)로부터 원시불교 특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얻는다(證)는 교훈으로 주간과 야간, 통신으로 교육을 한다. 또한 매달 1박 2일은 신행실수 시간을 가져 배움을 체화시킨다.

강원불교대는 내년부터 승가 교육기관인 삼장불학원에 재가자들을 위한 대학원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여기에서는 경

## 늦바람 공부 4년째 "전법포교에 주력"

## 13기 학생회장 전찬호씨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쉬움과 함께 알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집니다."

13기 학생회장 전찬호(63, 법원)씨는 4년째 강원불교대학을 다니다. 공무원 생활 정년퇴직 후 우연히 신문 광고를 보고 강원불교대학을 찾은 전씨는 교육 후, 태고종에서 발급하는 포교사 자격증도 취득할 정도로 열성 불자가 됐다. 전 학생회장은 "배움에 만족하지 않고 전법포교사로서 포교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전 강독을 중심으로 좀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준비 중인 홈페이지를 내년 개통, 사이버 포교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학장 백은 스님은 "대학원 과정 개설과 홈페이지 개통으로 분위기를 일신한 후 제2의 도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033)251-5040 춘천=남동우 기자

광주시내의 한 폐교가 불우노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광주지역에서 왕성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비신행회(회장 현정스님)는 최근 광주시 동구 옛 지원초등학교(지상2층)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임차해 개조공사를 마치고 14일 불교사회복지교육관 개관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새로 단장된 이 건물의 1층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기 위한 식당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 주부 회원들이 매일 도시락 115개를 정성껏 만들어 북구 오지복지관 등 불우노인 수용시설에 제공하고 있다.

식당 옆에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향토방이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는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에게 부항을 붙여주는 등 간단한 물리요법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전통무예인 수박치기를 가르치기 위한 도장도 마련돼 노인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특별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



자비신행회는 최근 광주시 동구 지원초등학교를 임대,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향토방, 경로 식당 등을 마련했다.

## 광주시내 폐교를 불우노인 쉼터로

## 자비신행회, 불교복지교육관으로 개조·개관

다. 건물 2층에는 노인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마음의 소리' 상담실, 법당, 강의실 등이 들어서 있다. 당초 '도시락 봉사'를 위해 지난 99년 7

월 20여명으로 출범한 자비신행회는 현재 회원수가 300여명으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신행을 펼치고 있다. 1년에 한 차례씩 호스피스 양성교육을 실시, 임종을 앞둔 환우

들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해왔다. 또한 청소년 장학사업과 전문불교상담교육에도 관심을 쏟았으며, 경전교실을 열어 왔다.

자비신행회는 그동안 해 온 사업의 연장선에서 9월 17일부터 12월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교육관에서 제1기 불교인문교육을, 9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제6기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한다. 호스피스 교육은 9월 27일 '죽음을 이해합니다'(현정스님), 10월 4일 '호스피스의 역사와 의미'(혜도스님), 10월 11일 '불교의 생명관' 이종표 전 남대교수 등 모두 14회 진행된다.

대원사 주지 현정스님은 "불교사회복지교육관에 광주전남교사불자회 등 신행단체들이 입주하는 신행공간으로 바꾸는 한편, 임종간호(호스피스)교육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불교전문 호스피스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의욕을 밝혔다. 062)234-2732 주유직 광주지사장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 "셋방, 재개발로 곧 헐려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서 버림받아 친할머니의 품에서 자란 아이. 타향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하다 사망한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아이. 아직까지 친할머니(김옥순, 71)를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 그런 선명(10, 남양주 양정초등학교 2)의 집이 재개발 때문에 곧 이사를 가야 한다. 선명이 사는 2층 단칸방에 들어가려면 먼저 주위의 물건들에 시선을 줘야 한다. 조그만 문 앞뒤로 물건들이 뒤죽박죽 쌓여있어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은 뒤, 방안으로 들어가면 텔레비전 한대와 장롱 하나, 한쪽에 쌓아 놓은 짐들이 전부다. "선명이 아버지가 우리 집 장남인데

다시 팔이 있는 논산으로 내려가고 싶지만 없는 살림에 피해를 즐기고 그러지도 못했다. 할머니의 삶이 이렇게 험로어져 버린 것에는 할아버지의 책임이 크다. 아들 셋과 딸 넷을 낳은 뒤 할머니가 40살이 되던 해, 주조공장에 다니던 할아버지는 소리소문도 없이 그만 집을 나가버렸다. 아직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조차 없다. 아버지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할머니는 죽음을 향해 살았다. 하지만 없는 형편에 교육은 사치였다. 그래서 아들 하나는 아직 막노동을 하고, 나머지 아들은 사람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고 할머니 품에서 자라 아버지 교통사고로 사망...20만원으로 한달

젊을 때부터 막노동을 다녔어. 선명이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도망가 버렸고, 선명이 아버지는 술만 먹다가 선명이 엄마 찾으러 다닌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지. 선명이는 내가 핏덩이 때부터 키워어."

그러나 선명이 아버지는 돈이나 없이는커녕 강원도 철원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만 전해줄 뿐이었다. 사망 소식에 눈앞이 캄캄했다는 할머니는 '혼구석에 처박혀 사는 죄'로 장남이 어떻게 죽었는지,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가슴과 산산에 장남을 묻어야 했다.

이후 할머니는 시골에서 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다 2년전 딸이 살고있던 남양주시로 선명이와 함께 왔다. 그러나 딸이 사정상 다시 논산으로 이사를 가고 할머니와 선명이가 땅그러니 남았다.

딸들 역시 없는 집에 시집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도 딸이 살림 밑천이라고 한달에 합해서 10만원 정도는 보낸다. 여기에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30여만 원을 더한 40만원으로 한달을 버린다. 그러나 사글세 20만원을 빼면 결국 20만원이 생활비다. 여름철에는 그런 대로 버티지만 겨울철에는 난방비 때문에 보일러는 꿈도 못 꾸다. 전기장판에 할머니와 손자가 어깨를 붙여가며 잠을 잔다. 하지만 그런 보금자리도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동네가 재개발 지구로 선정돼 이달 안으로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이다.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96-2 전화번호:031-565-1405 후원 계좌:농협 204030-56-075151(예금주 조선명)

할머니와 선명이 뒤로 쌓여있는 이삿짐들. 사진=임민수 기자

# 범패의식 비디오

"범패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니까?"

한번이라도 공부하신분은 아실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에 출시되는 범패의식 비디오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남, 호남, 수도권에서 의식 되어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범패가 이번 비디오에 수록되어 있으며 기존 제품이 달리 방송용 카메라(ENG) 조명장치, 크레인, 성우더빙 등을 사용하여 화면이 생동감이 있고 우리나라 및 세계각국의 유명명승지를 화면에 이중영상처리하여 범패의식의 지루함을 보완하였습니다.

<p><b>1. 안정사 전통범패의식(경남 통영)</b></p> <p>해강 큰스님(무형문화재 제9호 보유자) 진하스님(준보유자 / 서울 금강선원 교수)</p> <p>(1) 대령 / 관속 (2) 지장청 (3) 전시식 (4) 삼신이운 / 삼보통청 (5) 범패작법부 따라하기(실습용)</p>	<p><b>2. 태고종 전통범패의식</b></p> <p>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자/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p> <p>(1) 대령 / 관속 (2) 상주권공 지장불공의식 (3) 상용영반 / 산중작법 의식 (4) 교재</p>
--	---

**3. 청화 대선사 비디오**

(1) 순선법문 1, 2  
(2) 서울길상사 천도제  
(3) 철원심원사 보살계  
(4) 변산실상사 천도제

구입처: **다원미디어**  
[02]957-4886 / 016-240-3468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332-606

계좌번호: 외환은행 284-18-00208-7

※ 초파일, 사찰행사 등에 이미 녹음된 TAPE나 촬영된 비디오를 선명하고 소음을 제거하여 재편집하여 비디오, TAPE, CD, DVD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범성출판

# 불교의식(범음범패) 수련생 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제11기)
- 지도방법: ① 출강 ... 매주 수요일·금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 학습내용
  - ① 송주편(도량식·조석종성 등)
  - ② 예경편(상단에불·조석에불·각단에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 ③ 현공편(삼보통청·중단퇴공·불공시식·관음·지장·신중청 등)
  - ④ 재의식편(천도제·49제·시타림·기제사·명절제사·방생의식 등)
  - ⑤ 시식편(관음시식·화엄시식·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수강신청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접수마감: 2002년 10월 5일까지(현재 접수중)
- 접수방법: 전화 접수 후 서류 제출
- 개강일시: 2002년 10월 9일(수) 오후 5시, 본 대학 강의실
-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의 특징 -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지도와 편의 제공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위치: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 종로구 전지동 110-1 (전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

## 바라작법반 모집

※ 49재, 천도재 등 법회시 바라작법 및 북·태징·사물 다루는 법을 자세하고 완벽하게 지도함.

- 수련기간: 6개월 과정 (제4기)
- 교육시간: 매주 월요일 5시~7시(2시간) 화요일 3시~5시(2시간)
- 개강일시: 10월 7일(월) 오후 5시 본 대학 강의실
- 학습내용: 상주권공, 대령관속,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점안의식 등 (법주·바라지 교육전문)
- 작법: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북청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 사물: 북, 태징 등 사물 교육
- 접수방법: 불교의식반과 동일